

# 中國에서의 媽祖 信仰의 成立과 發展에 관하여\*

李 京 圭 (대구가톨릭대)

- |                        |                  |
|------------------------|------------------|
| I. 머리말                 | 1. 媽祖 信仰의 擴散     |
| II. 媽祖 信仰과 傳統宗教와의 關係   | 2. 媽祖 位相의 格上     |
| 1. 媽祖 信仰의 起源           | 3. 媽祖 信仰과 社會・經濟的 |
| 2. 媽祖 信仰과 佛教 및 道教와의 關係 | 狀況               |
| III. 媽祖 信仰의 發展         | IV. 맺음말          |

## I. 머리말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사업가나 지식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인의 해외 진출이 근년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해외에 사는 중국 사람들을 ‘華僑’라 명명하게 된 것은 19世紀에 이르러서이지만, 실은 훨씬 이전부터 바다를 통한 중국인의 해외 이동이 빈번히 있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안전하게 지켜 줄 항해신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媽祖’<sup>1)</sup>다.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沈繼生, 「泉州의 媽祖信仰海洋文化的標本」(許在全 主編, 『媽祖研究』, 廈門大學出版社, 1999), p.91에 의하면 마조는 閩語로 祖母의 뜻임.

媽祖는 본래 항해의 수호신으로 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그것과 더불어 家內安全, 災厄 退治, 立身 開運 등 재난을 물리치고 안전과 이익을 보장해주는 만능신으로 승격되어, 중국 동남 연해부(福建, 廣東, 浙江), 산둥, 천진, 동남아시아 및 일본 해안 일대에서 널리 신봉되고 있다.

媽祖는 신이 된 실재의 인물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전설도 개입되었으리라 생각되기는 하나, 문헌에 의하면, 媽祖는 본명이 임묵인데, 송대 960년 福建省 莆田 湄洲섬에서 여자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현명하고, 불교, 도교, 유교 등의 서적을 섭렵하였다. 거기에 더욱 神通力이 있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 주고 항해 중의 난파선을 구해주는 등 여러 가지 기적적인 행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마조는 항해자의 수호신으로 신격화되었다.

마조 신앙은 지금도 많은 중국인과 화교 사회에서 널리 숭배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娘娘’, ‘海上女神’, ‘天妃’, ‘天后’, ‘天上聖母’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sup>2)</sup>

원래 중국인들은 선사시대부터 초자연적 세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은대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 세계가 우주를 주재하는 天神이나 上帝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천신은 인간에게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절대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물었다. 은대 사람들은 천신과 더불어 조상신도 숭배하였다. 조상을 숭배함으로써 귀신의 힘을 빌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周代부터는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신과 영혼을 신앙하면서 점이나 제사를 중시하여 왔다. 더불어 이런 것들은 중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민간 신앙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중국 민간 신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기능인데, 민간 신앙에서 섬기고 있는 각종 신령에게는 모두 일정한 직능

2) 沈繼生, 위의 주; 高惠蓮, 「東中國海の 媽祖信仰 -天妃顯聖錄을 통해 본 마조 일화와 그 성격-」(『島嶼文化』 25, 2005). p.165.

과 직분이 있다는 것이다.<sup>3)</sup>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용적인 공리성을 표방한 것으로, ‘有靈必求’·‘有求必應’·‘有應必酬’라는 말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므로 공리성을 가지고 필요하기만 하다면, 어떤 인물이나 사물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宋代에는 마조가 출현하여 중국 고대 해상의 보호 신으로써 항해자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마조 신앙은 항해자의 족적을 따라 중국의 연해 지방과 동남아 등지로 전파되었는데, 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명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마카오’라는 도시명이 마조를 모신 祠廟인 ‘媽閣’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고, ‘香港(홍콩)’이라는 도시명이 ‘洪香爐港’, 곧 마조(天后) 제사 시에 사용되는 ‘붉은 색의 향을 피우는 향로(洪香爐)’가 있는 ‘港口’라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하니<sup>4)</sup>, 해신인 마조의 위상을 짐작할만하다.

오늘날 마조의 탄신일인 3월 23일이면, 마치 이슬람교도들이 성지 메카를 순례하듯 중국 내지 사람들은 물론,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의 화교들은 마조의 출생지인 미주섬의 湄洲祖廟나 천진의 천후궁을 찾아가 참배하는 일이 많다.<sup>5)</sup>

그렇기에 마조에 대한 연구는 관제묘 연구와 함께 다른 어떤 민간 신앙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5년, 중국에서 발간된 『媽祖研究資料』<sup>6)</sup>에 의하면, 마조에 관해 출판된 서적이 350여권에 이르고 있고,

3) 曹永憲은 valerie Hansen, *changing gods in medieval China, 1127-1276*, (Princeton 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47과 p.75의 견해를 참고하여 민간 신앙이 생성초기의 신앙적 성격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인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신성을 첨가하는 것이 송대 이래 민간 신앙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曹永憲, 「明·清代 水神祠廟와 徽州商人 -淮·揚지역 大運河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85, 2006) 참조.

4) 馬書田, 『華夏諸神』 (北京: 燕山出版社, 1991), p.102.

5) 張桂林, 「試論媽祖信仰의 起源·傳播及其特点」 (『史學月刊』 4, 1991), p.27.

6) 鄭麗航·蔣維鈞 主編, 『媽祖研究資料』 (中國 海風出版社, 2005). 이에 의하면 역사 문헌자료로서는 ① 專著(역사상 이미 출판된 단행본 문헌자료) 26 ② 檔案(역대 조정의 詔告, 諭旨, 奏表, 咨文, 起居注, 諭祭文 등) 214 ③ 비문451 ④ 筆記(역대 문인의 각종 체제 산문 및 필기) 273 ⑤ 詩詞 327 ⑥ 史料(각종 역사류 저작 및 類書 중의 마조 관련 문장) 97 ⑦ 方志 754 등이 있다. 그리

논문 및 잡지에 기고한 글까지 포함하면 1500편에 이를 정도로 많은 연구물이 나와 있다. 조사된 비문만도 450 여건에 이르고 있다. 과거 마조에 관하여 기록된 역사서적 자료가 26권에 이르고, 지방지 가운데 마조에 관해 기록된 곳이 750여 개소에 이르고, 詔告, 諭旨, 奏表, 咨文, 諭祭文 등 역대 조정의 글을 기록한 당안자료만도 214 문건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관과 민에서 마조 신앙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가히 짐작하게 한다.

마조에 관한 연구는 중국, 타이완, 일본 등의 국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주로 마조의 탄생 설화 및 마조 신앙의 원류, 제사 활동, 마조 신앙과 사회와의 관계, 각종 마조묘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 연구가 의외로 소홀한 셈이다. 한국에는 마조 신앙이 활발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된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 질서 및 기층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조 신앙에 대한 이해가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몇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마조 신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2010년에도 마조 신앙에 대한 논문이 3편이나 발표되어 고무적이다.<sup>7)</sup>

---

고 현대의 연구 자료 및 관계된 글로서는 ① 저작 359 ② 題錄(논문 및 잡지 기고) 1500 ③ 일문 저작 7 ④ 일문 제록 43 ⑤ 영문 저작 및 논문·잡지 기고 35 ⑥ 기타 4 등이 있다.

- 7) 한국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왕리문, 「津民間媽祖信仰的變異性」(『아세아민속연구』 1, 아시아민속학회, 1997); 김인희, 「한·중 해신신앙의 성격과 전파 -媽祖神을 중심으로-」(『韓國民俗學』 33, 2001.6); 고혜련, 「동중국해의 마조 신앙 -천비현성록(天妃顯聖錄)을 통해 본 마조 일화와 그 성격-」(『도서문화』 2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5); 정준, 「중국의 마조 신앙과 관음신앙」(『도서문화』 27,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7, 2006); 고혜련, 「皇會와 朝鮮의 媽祖寺院」(『中國史研究』 50, 2007.10); 拙稿, 「송대 泉州의 번영과 媽祖信仰」(『인문과학연구』 13,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張德安, 「天津皇會中的人與社會 -對中國廟會整合功能‘以人爲中心’的個案考察-」(『中國史研究』 65, 2010.4); 고혜련, 「天津 皇會<行會圖>에 관한 一考察」(『역사와 경계』 75, 경남사학회, 2010) 등이 있다. 금년에 발표된 3편의 논문 중 2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민간 신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마조 신앙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민간 신앙의 생성 과정과 그 기능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마조 신앙의 발전이 당해 사회·경제적 발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려 한다. 마조 신앙의 발전은 마조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하고 도왔던 그녀의 희생 정신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당해 역사적 상황 및 사회·경제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 Ⅱ. 媽祖信仰과 傳統宗教와의 關係

### 1. 媽祖信仰의 起源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아, 다신교 국가라 할 수 있다. 정통적인 불교, 도교 외에 수많은 민간 신앙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하늘, 땅, 바다, 바람, 우레 등 여러 자연 현상에는 모두 일종의 神明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왔다. 그리고 인간이라 할지라도 濟世濟民했던 사람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있다. 關帝廟, 岳王廟, 二王廟<sup>8)</sup>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媽祖 또한 이런 부류에 속한다 할 수 있겠다.

마조 신앙의 기원은 송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전승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송대 미주섬에서 태어난 林氏女가 승천하여 신이 되었다는 설이 가장 일반적이다.

마조 신앙의 기원에 관한 기록 중, 시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1150년에 廖鵬飛가 찬한 「聖墩祖廟重建順濟廟記」가 있다.<sup>9)</sup> 거기에는 마조에

---

편의 논문이 天津 皇會에 관한 글로, 북방의 마조 신앙에 대한 관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

8) 秦代 四川省의 都江堰을 수축했던 李冰 父子의 치수 공적을 기념하고 제사하는 곳.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마조는 성은 임씨이고湄洲 섬사람이다. 처음에는 巫祝을 일삼다가 사람의 화복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 섬에 廟堂을 세웠다. 聖墩은 미주 섬에서 수 백리 떨어져 있는데, 元祐 병인년(1086), 墩上에 밤에 항상 光氣가 나타나자 향인들은 어떤 상서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랐다. 한 어부가 가서 보니 곧 枯槎(마른 뗏목)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집에 옮겨 놓았는데, 다음날 보니 그것이 저절로 전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그 날 밤 꿈에 둔대 옆에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湄洲神女다. 그 枯槎는 실로 믿을만하다. 마땅히 나에게 돈상에서 목을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다오’라고 하자, 부로들은 이를 기이히 여기고 廟堂을 세웠기 때문에 聖墩이라고 하였다. 해마다 한발이 있으면 기도하고 역병이 나돌면 기도하고 해적이 출현해도 기도하고 하였는데, 그 때마다 그 응답이 빨랐다.<sup>10)</sup>

媽祖의 성씨는 임씨이며 그 신앙은 미주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조는 항해자를 돕고, 한발과 역병을 잘 막아주었기에 사람들은 마조가 죽은 후 묘당을 세워 제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말청초의 『天妃顯聖錄』에는 출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에 의하면 “임목은 乾隆 元年(960), 복건성 莆田縣 湄洲 섬에서 관리 林愿<sup>11)</sup>의 1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마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어도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였기에 그 이름을 ‘默’이라 하였다.”<sup>12)</sup>고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마조는 조광윤이 송을 건국(960)한 그 해 3월 23일 亥時에 福建省 莆田縣의 湄洲섬에 林愿(처 왕씨)의 일남육여의 막내 여자아이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9) 張桂林, 앞의 논문, p.27.

10) 廖鵬飛, 「聖墩廟重建順濟廟記」, “(媽祖)姓林氏, 湄洲嶼人. 初, 以巫祝爲事, 能豫知人禍福. 既歿 衆爲立廟於本嶼. 聖墩去嶼幾百里, 元祐丙寅歲, 墩上常有光氣夜現, 鄉人莫知爲何祥. 有漁者就視, 乃枯槎, 置其家, 翌日自還故處. 當夕遍夢墩旁之民曰我湄洲神女, 其枯槎實所憑, 宜館我于墩上. 父老異之, 因爲立廟, 號曰聖墩. 歲水旱則禱之, 癘疫崇 則禱之, 海寇盤亘 則禱之, 其應如響.”

11) 林愿은 당시 복건 興化府의 都巡檢으로 활약하였다.

12) 僧昭乘, 『天妃顯聖錄』, “生至彌月, 不聞啼聲, 因命名曰默.”

그리고 남송 寶祐 5년(1257)에 黃岩孫이 지었다고 하는 『仙溪志』에는 “順濟廟는 본래 湄洲의 林氏女로 무녀가 되었으며 사람들의 화복을 능히 잘 알았다. 그녀가 죽음에 그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하였다”<sup>13)</sup>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의 ‘順濟廟’는 미주 임씨 곧 마조묘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녀는 무녀로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잘 아는 신통력을 지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태어난 湄洲섬은 興化府 莆田縣으로, 莆田에서 동남쪽으로 80리 가량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다. 이 섬은 대만해협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위치는 福州과 泉州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 해상 교통의 주요 경로다. 이곳의 섬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바다가 생활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마조가 태어난 미주는 섬이기 때문에 기상 변화가 많은 편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항해 중 언제 태풍과 암초를 만날지, 배가 언제 어떻게 침몰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섬과 해안 사람들은 유력한 해상의 보호신을 기대하였는데, 사람들의 이런 욕구와 필요에 의해 마조 신앙이 출현하였던 것이다.<sup>14)</sup>

마조는 생전에 병자들의 병을 잘 고쳐주고 또한 해상의 자연현상을 예견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어선과 상선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잘 구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모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가는 도서민이나 어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흡인되었고, 자연히 항해자들의 의존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주섬 사람들은 그녀의 은덕에 감화하여 그 섬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이 곧 내외에 잘 알려진 湄洲媽祖廟로, 세계 26개 국가에 퍼져 있는 5000여개의 媽祖廟 중 마조묘의 시조묘격인 “祖廟”로서 그 명성이 높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마조(임목)는 湄洲섬 출신이고, 그녀는 무녀로

13) 黃岩孫, 『仙溪志』 三妃廟條, “順濟廟, 本湄洲林氏女爲巫 能知人禍福歿而祠之.” (金秋鵬, 앞의 논문, p.3 재인용).

14) 張桂林, 앞의 논문, p.28.

신통력이 있었으며, 병자들을 잘 낫게 해주고, 어선과 상선의 안전운행을 도모해 주었으며, 그가 죽은 후 해신으로서 항해자들의 수호신이 되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수호신으로서 마조 신앙은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고대 항해자는 오랜 동안 항해 생활을 하면서도 과학적인 지식이 빈약하여 해상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잘 파악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풍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더불어 자신의 운명을 보장 받기가 어려웠다. “萬里海洋, 渺無際涯, 陰晴風雨, 出于不測”<sup>15)</sup>이라고 표현되고 있듯이 끝없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항해자는 흐름과 갭, 비바람 출몰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기에 항해는 사람들에게 위험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때에 어부 및 항해자들은 자기의 생명을蒼天 하늘에 맡긴 채 신의 보호를 간구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조가 해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마조는 항해자의 해신으로서, 그들의 사실상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으며, 바다에 생업을 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신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물론 마조보다도 더 앞선 해신도 없지 않아 있었다. 『山海經』에 나타난 ‘四海神’ 및 민간에서 널리 신봉되던 ‘四海龍王’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신들은 모두 자연신으로, 그들은 선악을 겸비하면서, 인류가 선할 때는 복을 가져다주지만, 때로는 妖怪로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였다. 항해자가 요구했던 것은 능히 해양을 주재하고 風雨雷電을 관장하며, 요괴를 없애고 해난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신을 원하였던 것이다.

마조 신앙은 이런 항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생겨났던 것으로, 항해자의 필요성과 민간 신앙의 실용적인 공리성이 결합되어 마조 신앙은 성립되었다 할 수 있다.

## 2. 媽祖信仰과 佛教 및 道教와의 關係

15) 趙汝适, 『諸蕃志』 卷下 「海南」.



마조의 탄생 설화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마조의 어머니 왕씨가 하루는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때 관음보살이 한 개의 仙丹을 주어 그것을 먹고 수태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그의 탄생 설화에 불교적 요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여자 아이는 14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에 방안에 紅光이 가득하고, 향기가 방안에 그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 징조가 범상치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기가 일 개월 동안이나 울지 않았다고 하며, 그렇기에 그녀의 이름을 ‘默’이라 지었다고 한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재기 발랄하였으며 글을 읽으면 곧 바로 다 암기하였다. 16세에 신통력으로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여 ‘通賢靈女’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 이리하여 그녀는 巫女로서 의사와 약이 부족한 편벽한 어촌에서 병 고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당시에는 巫와 醫가 서로 결합되어 있던 것이다.<sup>16)</sup> 그런데 28세 때에 그녀의 부친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여 행방불명이 되자, 임묵은 비탄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가 후에 帽山の 정상에서 선인의 부름을 받아 신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녀는 또한 무녀로서 신통력을 지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데 영험하였으며, 기상예보를 잘 하여 항해에 안전을 도모하였고, 조난이 있을 때에는 그녀가 잘 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sup>17)</sup>

반면, 마조의 죽음에는 도교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淸 乾隆 35년(1770)에 『天妃顯聖錄』과 역대 정사를 참고하여 林霏가 편찬한 『敕封天后志』 卷下에 “宋 太宗 雍熙4년(987), 마조가 28세 되던 해의 9월 8일에 가족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마음에 참된 평정이 유지되어 진토에

16) 沈繼生, 「泉州의 媽祖信仰海洋文化的 標本」 『媽祖研究』, pp.70-71.

17) 金秋鵬, 앞의 논문, pp.3-4.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도다. 내일은 重陽日(9월 9일)로 등천하기에 좋은 날이니 고별을 알린다'고 하였다. 가족들은 그녀가 높은 곳에 올라가 먼 곳을 조망한다는 의미로 알았지 그녀가 장차 신선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 다음날 마조는 분향하고 경을 암송한 후 여러 자매들에게 고별인사를 하고 湄洲 섬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갔는데, 짙은 구름이 가로놓여 있고 흰 기운이 하늘에 걸쳐 있으며, 공중에는 비단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하늘의 소리와 합하여 사람을 현혹시켰었다. 마조는 아른거리는 기운과 바람을 타고 휘영청 밝은 달빛 가운데 날아가니 사람들은 흐느껴 울며 경탄하였다. 마조는 갑자기 구름 속으로 날아 올라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sup>18)</sup>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마조의 죽음에는 도인들의 승천에 비견되고 있어 도교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 마조는 스스로 자기 수명의 장단을 정할 수 있었고, 20대에 죽음으로써 영원히 젊음을 간직한 장생불사의 신이 되었다. 마조는 중국 도교의 미모가 수려한 젊은 여인이고, 도교의 신이 속계를 떠날 때에는 승천의 형식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마조 역시 그러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마조의 출생과정에는 불교적 요소가, 죽음과 사후 과정에서는 도교적 요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조 신앙이 오랜 역사과정을 거쳐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불교적요소와 도교적 요소가 첨가되면서 민간 신앙화 되었음을 의미한 것이라 해석된다.

또한 마조는 관음보살과 연관되어 있음도 발견된다. 『天妃顯聖錄』에 의하면 媽祖는 항상 ‘千里眼’과 ‘順風耳’, 두 신을 거느리고 다녔다. 이 두 신은 본래 모두 악신이었으나 마조에게 굴복한 후 개심하여 마조의 수호신이 되었는데, 이들의 초인적인 능력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천리안은 ‘觀’이고,顺风이는 ‘音’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 마조신의 두 수행신은 ‘觀音’의 화신이거나 관음과 같은 능력을 갖춘 수행

18) 林霽, 『敕封天后志』 卷下 (김인희, 「한·중 해신신앙의 성격과 전파 -媽祖神을 중심으로-」 『韓國民俗學』 33, 2001, p.81 재인용).

신이라 해석되며, 마조가 관음보살과 연관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sup>19)</sup>

### Ⅲ. 媽祖 信仰의 發展

#### 1. 媽祖 信仰의 擴散

마조 신앙은 북송대에 단순히 항해자들에게 신격화되어 숭앙되었으나 남송대에 이르면 이미 상인들이 마조상을 제작하여 항해하는 선상에 奉安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sup>20)</sup> 그 결과 마조 신앙은 상인들과 항해자의 족적을 따라 여러 곳에 전파되었다.

마조 신앙이 확대되어 가자, 이에 대한 신앙은 단순히 항해자나 상인 등에 국한 될 뿐만이 아니라 관원이나 지식인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송 시대에 이미 나타났다. 특히 1150년에 廖鵬飛가 「聖墩祖廟重建順濟廟記」를 찬하여 발표한 이후, 莆田 지방에는 관원이나 지식인이 마조에 관한 글을 남겼다. 마조에 대한 시가 지어지거나 그에 관한 책이 나왔다. 부호 가운데에는 토지를 헌납하여 廟堂을 세우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를 보면 남송대 紹興 8년(1138)에 장원 급제한 진사 黃公度가 「題順濟廟詩」<sup>21)</sup>란 제목의 시를 지었는데, 이것은 마조 신앙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만능 보호신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또한 얼마나 군중들이 열렬히 마조를 숭배하였나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남송 李俊甫는 1209년에 「神女護使」라는 글에서 마

19) 高惠蓮, 앞의 논문, pp.176-177.

20) 丁伯桂(1230年)撰, 『艮山順濟聖妃廟記』(張桂林, 앞의 논문, p.32 재인용).

21) 黃公度の 「題順濟廟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枯木擎靈滄海東, 參差宮殿峯晴空. 平生不厭混巫媼, 已死猶能效國功. 萬戶牲醴無水旱, 四時歌舞走兒童. 傳聞利澤至今在, 千里危樯一信風.” 여기서 순제묘는 마조묘를 지칭한 것으로, 선화 5년 路允迪과 徐兢 일행이 고려에 사신으로 다녀왔을 때 마조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바다를 건너왔다는 보고를 받고, 송 휘종이 順濟廟라는 廟額을 내렸는데, 이것은 조정에서 내린 賜廟額 가운데 최초의 것이다.

조를 '生而神異'(살아 있는 神仙)라 하여 칭송하였다.<sup>22)</sup> 진사 출신의 丁伯桂는 죽은 후의 마조를 '通賢靈女'라 크게 칭송하였는데 '通賢'이라는 것은 선행을 일삼고 효심이 많으며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靈女'는 총명하고 재주가 있으며, 문무에 능하며 의지력이 굳센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에 마조는 때로 '龍女(용왕의 딸)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남송 開慶 원년(1259)에 李丑父는 "禦災患, 有功德于民"(大災 大患을 막고, 공덕을 민에게 베푼다.)라 하였다.

그리고 남송대의 名相인 陳俊卿이 紹興 27년(1157)에 고향 白湖에 토지를 헌납하고 '白湖順濟廟'를 건립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는 마조신앙을 조각하여 세우고 그 이듬해에 순제묘를 준공하였다. 그 상량문에 "今仰白湖香火, 幾半天下(지금 백호 마조묘의 향불을 우리러 보니 천하의 반을 거의 덮었다)"라고 하여, 백호묘의 제사가 성행함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 백호순제묘는 관가에서 제사를 주관한 마조묘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심지어 남송 말기 마조를 직접 白湖妃라 하면서 마조 신앙의 선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up>23)</sup>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마조 신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마조 신앙은 미주 지방에서 포전현의 육지로 전파되었고, 이것이 더 발전하여 莆田을 중심한 복건성에서 점차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다. 남송 말기의 문학가인 劉克莊(1187~1269)이 마조 신앙에 대한 상황을 "香火布天下(마조 신앙의 향불이 천하에 퍼졌다)"<sup>24)</sup>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남송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마조 신앙 숭배 사상이 전국적으로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조 신앙 숭배가 이렇게 널리 유포된 데에는 무엇에 기인한 것일

22) 李俊甫, 『莆陽比事』 卷7 (張桂林, 앞의 논문, p.32 재인용).

23) 張桂林, 앞의 논문, p.32

24) 劉克莊, 「風亭新建妃廟」(『後村先生大全集』 卷91), "生封侯, 死廟食, 大丈夫事也. 妃以一女子, 與建隆真人, 同時興奮, 去而爲神, 香火布天下, 與國家祚運相爲無窮."

까? 그것은 사람들의 생존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sup>25)</sup> 생존의식은 일상생활 및 생산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기 생존의 필요에 따라 주요 직능과 동시에 또 다른 부차적 직능을 겸하고 있는 神靈을 모시는 법이다.<sup>26)</sup> 이를 테면, 하늘에 天道를 주관하는 玉皇大帝가 있고, 오방에 각각 신이 있는데, 靑帝는 동방을 주관하고, 赤帝는 남방, 黃帝는 중방, 白帝는 서방, 黑帝는 북방을 주관한다고 한다. 天神 중에는 男仙을 주관하는 東王公과 女仙을 주관하는 西王母가 있다. 山水에도 각기 신이 있는데, 五岳은 神山으로 봉하고, 각 명산마다 받드는 신이 모두 있다. 물에는 四海龍王이 있는데, 용은 물에 사는 생물을 관장할 뿐 아니라 구름과 비를 관장한다. 땅에는 각 지역마다 토지신이 있어 그 지역을 관장하는데, ‘社神’이라고 하였으며 속칭 ‘土地公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신격화 하였다. 雷公은 천둥을 관장하는 신, 電母는 雷婆로서 번개를 관장하는 신, 雨師는 비를 관장하는 신, 箕伯은 바람을 관장하는 신, 回祿은 불을 관장하는 신이라 하였다.

방위에 있어서도 靑龍은 동방의 신으로서 吉祥을 함께 관장했고, 白虎는 서방의 신으로 凶神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朱雀은 남방의 신이고, 玄武는 북방의 신이었다. 四神을 합쳐 四方之神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동물의 精靈도 숭배하였는데, 牛王, 馬王, 蠶神, 蛇神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는 중국 민간 신앙에서 仙術을 깨달아神通력을 체득하였다고 하는 여우가 狐仙으로 숭배되기도 하였다. 호선은 만능의 신, 특히 財祿神으로서 화북 및 동북 지방에서 많이 신앙으로 숭배되었는데, 상가, 주점 또는 도박장 같은 곳에서 흔히 사당을 만들고 그 신주를

25) 金秋鵬, 「泉州天后宮在媽祖信仰傳播中的作用」(許在全 주편, 앞의 책), p.1.

26) 徐杰舜, 「漢族民間信仰特征論」上(『廣西民族學院學報』24-1, 2002), p.75. 농업과 관련된 신으로는 무지개를 관장하는 虹神, 牛郎과 織女도 있었으며, 이는 별의 인격화이고, 福星·祿星·壽星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 三官信仰이 있는데, 天官은 賜福, 地官은 赦罪, 水官은 解厄을 관장하였다. 사람의 신화로는 八仙이 많이 언급되는데, 鍾離權, 張果老, 韓湘子, 鐵拐李, 曹國舅, 呂洞賓, 藍采和, 何仙姑이다(徐杰舜, 위의 논문 下 참조).

모셔 두었다.

斗姆은 북두칠성의 어머니로서 병을 낫게 하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壽星은 老人星으로 長壽를 관할하는 신이고, 麻姑는 長壽女仙으로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앙하였다.

그리고 문장의 興衰를 주관하는 魁星, 공명과 祿位를 주관하는 文昌星,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福神·喜神·凶神, 불교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고, 살아 있을 때의 행동을 심판하여 상과 벌을 준다는 閻왕 등이 있고, 문에는 문신, 화장실에는 廁神 등 여러 민간 신앙이 존재하였다.

신의 세계에서 신의 신분이 높을수록 직능이 추가되는데, 마조도 최초의 직능은 祈雨와 사람들에게 화복을 점지해주는 무속적인 기능을 가졌었다. 하지만 해상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항해보호신이 되었고, 병을 낫게 하고 도적을 막아주는 직능까지도 동시에 가지면서 만능신의 직능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상 마조 신앙은 거의 중국에 두루 퍼졌다. 복건성 사회과학원 張大任 씨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지방지중 媽祖宮廟를 기재한 것이 22省市(홍콩, 마카오지역 포함)에 450개현에 달한다고 하였다.<sup>27)</sup> 즉 마조궁묘가 당시 연해나 沿江의 縣市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지의 귀주, 내몽고에도 마조궁묘를 건립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송대에 홍화부 포전현에는 마조 신앙이 널리 성행하였다. 송대의 丁伯桂가 지은 「順濟聖妃廟記」에 “莆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마조를 제사지내며, 향리에 모두 祠堂이 있었다”<sup>28)</sup>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宋의 丁伯桂가 찬한 「順濟聖妃廟記」에도: “妃廟가莆에 널리 퍼져있으며, 무릇 큰 시장과 조그마한 마을에도 모두 마조 사묘가 존재하고 있었다”<sup>29)</sup>라고 하여, 포전현에 마조 신앙이 얼마나 성하였는가를

27) 張大任, 「媽祖宮集」(1990年 <莆田媽祖研究國際學術討論會>資料).

28) 『浙江通志』 卷217 「祠禮1」에는 丁伯桂가 지은 「順濟聖妃廟記」를 인용하여 “莆人戶祠之,若鄉若里悉有祠”라 하고 있다.

29) 劉克莊, 앞의 문장, 「風(楓)亭新建妃廟記」, “妃廟遍于莆, 凡大墟市, 小聚落皆有

엿볼 수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어진 마조 祠廟로는 湄洲祖廟가 유명하며, 이 외에 平海衛의 天后宮이 유명하다. 이 평해의 천비궁은 咸平2년(999)에, 곧 媽祖 승천 후 12년이 된 때에 지어진 것으로 湄洲 媽祖廟에서 分靈된 최초의 行祠다.<sup>30)</sup> 또한 聖墩順濟廟는 元祐 丙寅年(1086)에 건립되었고, 江口 天妃廟는 紹興27년(1157)에 건립되었으며, 白湖順濟廟는 소흥30년(1160)에 건립되었다. 한편 仙游의 楓亭天妃廟는 元符 元年(1098)에 건립되고, 連江里 楓亭天妃行宮은 淳熙 5년(1178)에 건립되었다. 이처럼 포전현 일대에 걸쳐 마조 신앙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런데 송의 慶元 2년(1196)에는 泉州에 최초로 마조묘가 지어졌다. 그것이 오늘날의 ‘泉州天后宮’인데, 莆田 지역에 유행하던 마조 신앙이 상업도시인 천주로 전파된 것이다. 천주 천후궁은 포전지역 이외의 마조묘 중 가장 빠른 시기의 것으로, 이 마조묘는 마조 신앙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31)</sup>

그럼 여기서 마조 신앙의 전파와 천주 상인의 역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복건성 泉州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마조묘가 성립된 것은 해상 및 상업활동이 활발하였기 때문이었다. 천주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 해양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 특히 北宋 元祐2년(1087年), 泉州에 ‘福建市舶司’가 설치된 이후, 泉州는 대외 무역이 활발해졌으며 조선업도 성행하였던 것이다.

이후 천주는 송 · 원시기에 해외 무역에 관여하면서 도시가 크게 발전하였다. 원대의 천주는 해상 무역의 최대 중심지로 부상하였으며, 더불어 조선업도 발달하였다. 당시 대외 무역의 발달, 천주 상인의 활약 범위의 확대로 인하여 천주 상인은 동남아 일대의 여러 국가, 인도 대륙,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만의 연안, 나아가 아프리카 동북부 지

之.”

30) 이 사당은 明代에 확장 된 후, 天妃宮이라 명명하였다가 청의 康熙 22년(1683年)에 중건하고 이름을 天后宮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1) 金秋鵬, 앞의 논문, p.4.; 拙稿, 앞의 논문, pp.113-115

역에 걸쳐 무역에 종사할 정도로 그 활동이 활발하였다.<sup>32)</sup>

천주인들은 해상 활동이 그들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해상 생활은 자연 위협이 따르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해신으로서 마조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의 해상생활을 보호하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해준다는 마조를 해상여신으로 신봉하였다. 이러한 신앙심에서 천주인들은 선박을 건조하여 물에 띄울 때에는 실제 배에 바다로 나가기 전에 먼저 따로 선박의 모형을 만들어 마조묘에 올렸으며, 마조신상을 배에 봉안하여 안전을 기원하였던 것이다.<sup>33)</sup>

또한 상선이 운항될 때마다 매번 마조묘에서 마조에게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후 출항하였다. 그것도 관부에서 그 제사를 주관하여 거행하였다. 관부가 주관하여 제사하였다는 것은 마조 신앙이 국가의 큰 관심 가운데에 공인된 민간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천주를 중심으로 한 항해자 및 상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보호여신인 마조상을 지니고 다녔다. 이로 인하여 천주 상인들이 이르는 곳마다 마조 신앙이 전파되었다. 그 결과 복건, 광둥, 강절, 상해, 강소, 산둥, 천진, 북경, 멀리 요동까지, 그리고 남으로 대만 등지에 마조묘가 창건되었으며, 여러 마조묘를 수리한 후에는 금은을 궁중에 기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은 마조 신앙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다.<sup>34)</sup> 실제로 媽祖信仰의 전파는 천주 商人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5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된 원대 무역선이 발견되었다. 이 배의 출항지는 明州(寧波)였는데, 이배에 천주 상인들이 얼마나 승선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목제보살상과 인장이 출토되었는

32) 拙稿, 「元代 泉州와 基督教 石刻」(『中國史研究』 47, 2007.4), pp.107-115.

33) 위의 주, p.5.

34) 張桂林·羅慶四, 「福建商人與媽祖信仰」(『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2-3) 참조.



데, 이것들은 선원들이 신봉하던 마조신상이나 媽祖符籙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sup>35)</sup>

천주는 中唐 이래 중국의 대외무역항으로 크게 발전하였는데, 唐代의 시인 薛能은 「送福建李大夫」라는 시에서 “船到城添外國人(배가 천주에 도착하니 외국인 거류민이 더욱 많아지도다)”<sup>36)</sup>라 하여 당대 천주의 상업 및 임시 거주의 외국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북송대 해외무역은 더욱 번영하였다. 수많은 페르시아, 아랍, 유럽, 아프리카 상인이 몰려들었으며 “纈頭赤脚半番商, 大舶高檣多海寶(터번을 두르고 맨발을 한 이슬람 상인들이 외국 상인의 반을 차지하고, 대형 선박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보물이 그득하였다)”<sup>37)</sup>라고 하여, 외국 물건이 많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천주는 조정에서 설립한 三大市舶司 중의 하나로 유명하다.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하던 남송대에는 해상무역과 동시이 조선업도 발달하였다. “紹興 年間(1131-1162) 시박 수입은 220貫”<sup>38)</sup>이나 되었는데, 시박사를 통한 수입은 당시 국가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천주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시박사의 관원이 九日山에 올라가서 관방 祈風의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당시의 선박은 바람에 따라 항행하였으므로 매년 항해의 순리를 위하여 바람이 잔잔해 주기를 기도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천주에 天后宮이 건립 50년 후인 남송 말에는 구일산의 기풍 의식을 중지하고 마조제전으로 이를 대신하였다.<sup>39)</sup> 마조 신앙과 천주의 천후궁은 閩南 해신 신앙의 일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천후궁은 마조 신앙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35) 金秋鵬, 앞의 논문, p.5.

36) 薛能의 「送福建李大夫」詩中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그는 中唐이후 천주의 상업 및 임시 거주의 외국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37) 萬曆『泉州府志』「壇廟」天妃宮條.

38) 李玉昆, 『泉州海外交通史略』王連茂 序.

39) 李少園, 「論宋元明時期媽祖信仰的傳播」(許在全 主編, 『媽祖研究』, p.17)

수 있다. 남송의 丁伯桂는 “神之 祠가 단지 莆田에서만 성행한 것이 아니라 閩, 廣, 浙, 淮河 등지에 모두 祠가 있었다”<sup>40)</sup>라고 하였고, 劉克莊도 “마조는 비단 莆人만이 받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북으로는 변방까지 이르고, 남으로는 마카오에 이르렀으며, 변방인들이 마조를 더욱 부지런히 제사하였다”<sup>41)</sup>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원대에는 마조 신앙이 이미 천진에 확산되어 천진에 마조묘가 세워졌다. 원 세조 中統 二年(1261)에 운하를 통한 조운이 실시되자, 그 이후 강남에서 화북지방으로 운반되는 조량은 天津으로 모여들었으며, 천진은 조량 운수의 요충지가 되었다. 이 때 남방 사람들이 실어 나른 물자와 함께 자연히 마조 신앙도 전래되어 사람들이 마조를 숭배하게 되었다. 元의 세조 쿠빌라이는 至元 15년(1278)에 사람들이 제사하기 쉬운 천진 부두가에 마조 묘당을 건설하게 하고, 그것을 ‘天妃宮’으로 승격시켰다. 마조가 세조에 의해 천비로 봉함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중국에서의 북방 마조문화의 형성과 발전의 기반이 되었고, 더불어 천진의 도시가 발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명대에는 무역의 필요상 수많은 회관과 공소를 건립하여 그 활동을 확대하여 나갔는데, 이것은 마조 신앙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리하여 복건 지방의 상인들의 활동은 일본, 琉球, 남양지역에도 두루 미치고, 그 곳에 마조묘를 건립하여 마조 신앙이 조기에 해외로 전파되었는데, 복건상인의 공이 크다.

명·청시기에 이르러서는 마조 신앙이 전국 각 성에 퍼졌으며, 또한 화교의 해외진출과 더불어 마조 신앙도 해외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 2. 媽祖 位相의 格上

40) 丁伯桂, 「順濟聖妃廟記」(潛說友『咸淳臨安志』卷73), “神之祠不獨盛于莆閩廣江浙淮甸皆祠也.”

41) 劉克莊, 「風亭新建妃廟記」(『后村先生大全集』卷91), “非但莆人敬事, 餘北遊邊南使粵, 番禺之人, 祀妃尤勤.”

마조 신앙은 북방에까지 널리 확산되어짐과 더불어 그 위상도 크게 격상되었다. 마조는 다른 해신의 지위를 누르고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하는 향촌 보호신이나 지방신의 단계를 탈피하고 전국적, 아니 사해를 다스리는 지고의 신이 될 수 있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상인이나 항해자들이 널리 신봉하였다는 점도 있지만, 국가가 그녀를 국가 신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일반 민간인의 전파에만 의존했다라면 그렇게 일찍이 다른 민간신의 지위를 누르고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될 수 없었을 것이나 역대 왕조들이 마조에게 봉호를 내려 중시하였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하늘의 초월적인 힘을 ‘天命’이라 하고, 天子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고, 인간과 하늘의 중재자가 됨으로써 절대 권력을 향유하였다. 더불어 왕조는 천자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어떤 영험이 있는 신이 왕조에 유용하다고 여겨지거나 도덕적 가치가 크게 인정될 때에는 그 신에 대하여 작위를 내리고, 동시에 국가공인의 신전에 모시는 일이 많았다. 어떤 신에 대하여 국가가 봉호를 수여한다는 것은 그 신의 신령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더불어 숭배의 지위를 표현하는 것인데,<sup>42)</sup> 중국의 역대 왕조가 마조에게 ‘夫人’, ‘妃’, ‘天妃’, ‘天后’ 등의 奉號를 내림으로써 그 권위와 지위를 높였다. 이것은 미주섬의 한 향촌의 무녀가 일정한 역사 조건과 사회적 배경 하에 ‘天妃’ ‘天后’의 칭호를 받으며 국가의 비호를 받게 된 것이다.

마조에 대한 최초의 封號는 북송의 徽宗 때에 있었다. 宣和5년(1123)에 마조를 順濟夫人으로 봉하였다.<sup>43)</sup> “선화 5년에 휘종은 급사중 路允

42) 魏道恒(Gerd Wadow), 「論天妃稱號在國家崇拜中的意義」(『澳門媽祖論文集』, 1995), p.6. Gerd Wadow는 독일에서 중국의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43) 『宋史』 卷105, 禮八 「諸祠廟」, “婦人之神封夫人, 再封妃. 其封號者初二字, 再加四字”와 『宋會要輯稿』 第19冊 禮20之6에 의하면 부녀의 神에게는 夫人을 봉하고, 다음에 妃로 봉하며, 봉호는 처음에는 두 자 다음에는 네 자로 더해진다고 하였다.

迪을 高麗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항해 도중 거센 폭풍을 만나 8척의 배중에 7척의 배가 모두 바다에 침몰하고 오직 노윤적이 탄 배만 아직 침몰하지 않고 남아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 때 하늘에 간곡히 기도하였더니 홀연히 紅衣를 입은 신녀가 배의 돛대 가장자리에 내려와 앉았다. 황급히 머리 숙여 절하며 구해 주기를 청하였더니 삼시간에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잔잔해져 무사히 고려에 갔다 돌아올 수 있었는데, 신녀가 자신에게 재생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한 노윤적은 고려에서 돌아와 보고할 때에 지난 날 해상에서 만난 조난의 과정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이때 조정에서는 마조묘에 ‘順濟’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고 한다.”<sup>44)</sup> 순제라는 것은 해신 마조의 도움을 받아 사신 일행이 순풍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용어이다.

노윤적이 송의 사신으로서 고려에 왔을 때 그를 수행한 인물 가운데 國信所提轄人船禮物官으로 활약한 徐兢이 있다. 서긍<sup>45)</sup>은 노윤적과 함께 고려에 와서 개성에 1개월간 머물렀는데, 이때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가 귀국하여 이듬해에 책으로 엮어 발간한 것이 유명한 『宣和奉使高麗圖經』이다. 거기에

舊例에 의하면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할 때는 언제나 福建·兩浙의 삼사에게 위촉하여 客舟(민간 유통의 배)를 모집하고, 그것을 明州(지금의 寧波)에서 장식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는데 특별히 객주 크기의 3배에 해당하는 神舟(국가가 만든 대형의 관선) 두 척을 제조하고, 객주를 모집하여 수행케 했는데, 그 중에는 천주에서 만든 배도 있고, 또한 천주의 뱃사공도 있다. 그리하여 선상에서 사신들에게

44) 李俊甫, 『莆田比史』, 「神女護使」.

45) 徐兢(1091-1153, 자는 明叔, 호는 自信居士)은 북건성 甌寧(현재 建甌) 출신으로, 송대 유명한 외교가, 서화가이다. 그는 고려에 다녀가 『宣和奉使高麗圖經』(일명 『高麗圖經』)이라는 책을 지었다. 이 책은 40권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插圖가 있었으나 금의 침입으로 삼도는 없어지고 글만 남았다. 이 책은 당시 고려의 실정을 중국에 소개한 유일한 책으로, 고려사회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이 책에 나와 있는 한국말 소개는 우리말 연구에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는 高麗圖經을 편찬한 공이 인정되어 왕은 그를 ‘同進士出身’으로 내리고 太宗正事兼掌書學의 직을 제수하였으며 후에 尙書刑部員外郎에 이르렀다.

마조 신앙을 전파하였으며, 사신들이 돌아온 후 조정에 상주하였다.<sup>46)</sup>

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려에 가는 송의 사신들이 마조 신앙을 신봉하고 있었고, 이 때 마조의 도움을 크게 받은 관계로 황제는 순제라는 봉호를 내렸음을 보이고 있다.

원대에도 일곱 차례에 걸쳐 마조에 대한 책봉이 이루어졌다. 제1차는 至元15년(1278)으로, “制封泉州神女號護國明著靈惠協正善慶顯濟天妃”<sup>47)</sup>라 하여 ‘泉州神女’를 ‘護國明著靈惠協正善慶顯濟天妃’로 봉했고, 제2차는 지원18년(1281)에 “護國明著天妃”<sup>48)</sup>, 제3차는 지원25년(1288)에 “詔加封南海明著天妃爲廣佑明著天妃”<sup>49)</sup>라 하여 ‘南海明著天妃’를 ‘廣佑明著天妃’로 봉했으며, 제4차는 大德3년(1299)으로 “(加)泉州海神曰護國庇民明著天妃”<sup>50)</sup>라 하여 ‘泉州海神’을 ‘護國庇民明著天妃’로 가봉했고, 제5차는 延祐元年(1314)에 “加廣濟福惠明著天妃 廟額靈慈”<sup>51)</sup>였고, 제6차는 天曆2년(1329)에 “加封天妃爲護國庇民廣濟福惠明著天妃 賜廟額靈慈 遣使致祭”<sup>52)</sup>라 하여 친비(마조)에게 ‘護國庇民廣濟福惠明著天妃’로 봉하고, ‘靈慈’라는 묘액을 사액하였으며 더불어 관리를 보내어 제사하게 하였다. 제7차는 至正14년(1329)으로 “號海神爲輔國護聖庇民廣濟福惠明著天妃”<sup>53)</sup>라 하였다.

마조는 사람들이 붙인 해상 여신의 친숙한 칭호다. 중국인은 음양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신은 여성에 속한다고 여겼는데, 마조는 여성이

4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47) 『元史』 卷10 世祖本紀 7, 至元 15년 8월 辛未條, “制封泉州神女號護國明著靈惠協正善慶顯天妃.”

48) 『天妃顯聖錄』 「歷朝褒封至祭詔誥」.

49) 위의 주.

50) 『元史』 卷20 「成宗本紀」 大德 3년 2월 壬申條, “(加)泉州海神曰護國庇民明著天妃.”

51) 至順 『鎮江志』 卷8 「天妃廟」.

52) 『元史』 卷33 「文宗本紀」 2, 天曆2년 10월 己亥條, “加封天妃爲護國庇民廣濟福惠明著天妃, 賜廟額曰靈慈, 遣使致祭.”

53) 『元史』 卷43 「順濟本紀」 6, 至正 14년 10월 甲辰條, “詔加號海神爲輔國護聖庇民廣濟福惠明著天妃.”

있기에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 받는 해신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당시의 관리들은 조정에서 마조에게 봉작을 주도록 건의함에 따라 마조의 지위는 점점 높아져 갔던 것이다.

원대에 천비로 불리었던 마조가 清代에는 康熙 19년(1680 “護國庇民妙靈昭應弘仁普濟天妃聖母”라 하여 ‘천비성모’가 되었고, 康熙 23년(1684)에는 다시 “護國庇民妙應靈昭應普濟天后”라는 봉호가 내려져, 마조는 “天后”라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마조는 “天上聖母” 또는 “天后”라는 이름의 성스러운 칭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마조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구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도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역대 황제들은 마조에게 ‘天妃’, ‘天后’, ‘天上聖母’ 등의 작호를 하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조를 모시고 있는 사당을 ‘天后宮’이라 부르는데, 여기의 ‘后’는 황후의 뜻으로, 결국 마조는 ‘天上界에서 지위가 제일 높은 女神’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조는 중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신이라 할 수 있다.

淸 嘉慶 때에는 봉호가 30자 이상에 달하였는데, 그만큼 마조의 신격이 높아졌고, 그 신성의 기능도 확대되어 갔는데,<sup>54)</sup> 이것은 마조의 사회적 기능이 그만큼 다양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조에 대한 이러한 승격과 숭양은 전지전능한 ‘天主’와 관련지어 그렇게 한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일개 지방의 민간 신에 불과한 마조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항해신으로 도약하게 만들었던 것이며, 그 결과 마조의 신앙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마조 신앙은 불교·도교·유교의 요구에 적합하였고, 연해는 물론 山丘·城鄉의 일체 사대부와 서민들의 요구에도 잘 적응되었던 것이다.<sup>55)</sup>

54) 謝重光, 「略論媽祖信仰的主要社會功能」(『媽祖信仰的發展與變遷』, 臺灣宗教學會·北港朝天宮, 2003), p.325.

55) 위의 주.

마조 신앙은 복건성 광둥성의 상인이 활동한 연해부 일대로 확산되어 북으로는 동북지방의 심양이나 華北의 天津, 煙台, 靑島를 비롯하여 많은 항구 도시에 마조묘가 세워졌다.

천주를 비롯한 복건, 광둥, 양절 지방의 항해자들은 마조를 신으로 삼아 널리 숭배하고 신앙하였다. 더욱이 마조는 “선박을 보호하여 그 공이 심히 컸기 때문에”<sup>56)</sup> 조정에서 마조를 중시하고, 그 신을 승격시켜 천비로 삼았던 것이다. 천비로 삼은 것은 元의 世祖 때의 일이다. 세조는 천주의 해신, 마조에 대하여 「天妃」라 봉호를 내리었다. 조정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마조에게 천비를 가봉하고, 마조로 하여금 천하의 제 해신을 장악하는 지존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마조가 천비로 봉호를 받게 된 것은 천주를 비롯한 상인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원대 해외교통의 중심지는 천주였고, 전성기이고, 동시에 마조 신앙이 폭넓게 전파되던 시기로 원대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바탕위에 마조 신앙은 널리 전파되어 갔던 것이다.

또한 마조 신앙의 공적이 인정되어 두차례에 걸쳐 편액이 황제로부터 사액되었다. 제1차 사묘액은 ‘順濟’이다. 이것은 선화 5년(1123년)의 일이다. 『宋會要輯稿』에 의하면 “莆田縣有神女祠, 徽宗宣和五年賜額順濟”라 기록되어 있고, 남송의 丁伯桂의 『順濟聖妃廟記』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宋) 宣和 壬寅年(1123), 給事職에 있던 路允迪이 서적을 싣고 고려에 사절로 갔다. 바다 가운데서 빠르고 거센 바람을 만나 8척의 배가 물속에 가라앉았으나 노공이 탄 배만 홀로 남았다. 신이 배 갑판 난간에 내려와 앉아 있었기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 그 이듬해에 조정에 상주하니 조정에서 묘액을 내려주었는데, 그것은 순제였다”<sup>57)</sup>라는 것이 그것이다.

56) 吳自牧, 『夢梁錄』 卷14 「順濟聖妃廟」.

57) 『順濟聖妃廟記』, “宣和, 壬寅, 給事路公允迪載書使高麗, 中流震風, 八舟沉溺, 獨公所乘, 神降於檣, 獲安濟. 明年奏於朝, 錫廟額曰順濟.”; 李俊甫, 『莆陽比事』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宣和五年, 路允迪使高麗, 中流震風, 八舟溺亡, 獨路所乘, 神降於檣, 安流以濟. 歸還奏聞, 特賜廟號順濟.”; 원대 洪希文의 『續軒渠集』, 元代 程端學의 『靈慈廟記』, 그리고 명대 王圻의 『續文獻通考』, 청대 『天

제2차 사묘액은 ‘靈慈’이다. 때는 원대의 天歷 2년(1329)이었다. 『元史』의 文宗本紀에 ‘호국비민광제복혜명저천비’라는 봉호를 내리고 ‘靈慈’라는 묘액을 사액하고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치르도록 하였다.<sup>58)</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정은 외교사절의 항해, 海運에 의한 교역이나 물자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조의 영험을 필요로 하였는데,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마조의 도움을 받게 되자, 조정이 마조의 공적을 찬양하는 편액을 내리거나 봉호를 내렸다. 15세기 전반 明의 영락제의 명을 받아 전후 7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 동안까지 대 함대를 이끌고 원정한 정화의 대원정(1405-1433)도 배에 마조를 봉안하고 제사함으로써 그의 가호를 받기를 기원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마조 신앙은 더욱 더 확산되었다.

해외로 왕래하는 사람들은 마조를 배에 봉안하고 항해 안전을 기원하였다. 상륙하면 마조의 가호에 감사하고 육지에 사묘를 건립하여 제사하였다. 미지의 땅에서 생활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타이완, 동남아시아에서는 각지에 마조묘가 증대하여 차차 마조는 항해신의 위치를 벗어나 이른바 모든 영역에 안녕을 보장하고 재액을 물리치는 만능신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 3. 媽祖信仰과 社會・經濟的 狀況

송대 마조 신앙이 성행한 데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안(항주)에 도움을 한 남송은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강남의 미곡과 아울러 해상교통 무역이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해외 무역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송대 李心傳이 찬한 『建炎以來朝野雜記』의 「市舶司本息條」에 의하면 남송 초기에는

妃顯聖錄』神助漕運條 등에도 모두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 보이고 있다.

58) 『元史』卷33, 文宗本紀 2, 天歷 2年 10月 己亥條, “加封天妃爲護國庇民廣濟福惠明著天妃, 賜廟額曰‘靈慈’, 遣使致祭.”



동남해수가 150만 緡으로 시박 수입이 국가 전체 수입의 15%를 차지하였고, 5년 후에는 200만 緡으로 20%가 되었다. 이러한 시박 수입은 주요한 것이 閩廣으로부터 온 것이며, 가장 큰 항구는 천주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점하였다고 한다.<sup>59)</sup>

특히 원대에는 해외 무역의 발달로 말미암아 마조 신앙이 널리 전파되던 시기이다. 원 왕조가 중국을 통치한 기간은 백년이 채 되지 않지만, 마조 신앙은 이 원대에 남방에서 북방 연해의 많은 지방으로 전파되고 발전하였다. 그렇게 된 데에는 원조가 왕조 차원에서 마조 신앙을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원은 수도를 大都(지금의 北京)에 두어 해운을 통한 대량의 양식을 북방으로 수송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해운을 통해 남방의 식량을 운반하여 大都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대규모의 해상 조운을 열었던 것이다.<sup>60)</sup> 원대에는 ‘海道運糧萬戶府’, ‘海運千戶所’ 등을 설치하여 남방의 물산이 북방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각각 정3품과 정5품의 관원을 두어 조운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sup>61)</sup> 운반 담당자를 이렇게 고위관으로 삼았다는 것은 남방의 양식을 京師로 운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원조정은 남방의 많은 물자를 육로나 운하가 아닌 해로를 이용하여 京師로 운반하였다. 당시 이 해운에 있어서 조정은 항해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조 신앙을 이용하여 해상 조운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고, 그로 인해 해신 마조는 중시되었다. 특히 민간인은

59) 金秋鵬, 앞의 논문, p.6.

60) 『元史』 卷97 食貨5, 海運條, “元自世祖用伯顏之言, 歲漕東南粟, 由海道以給京師, 始自至元二十年, 至于天歷、至順, 由四萬石以上增而爲三百萬以上, 其所以爲國計者大矣.”

61) 『元史』 卷91 百官7, “海道運糧萬戶府, 至元二十年(1283)置, 秩正三品掌, 每歲海道運糧供給大都. 達魯花赤一員, 萬戶一員, 并正三品. 副萬戶四員, 從三品. 經歷一員, 從七品. 知事一員, 從八品. 照磨一員, 從九品. 鎮撫二員, 正五品. 其屬附見, 海運千戶所, 秩正五品. 達魯花赤一員, 千戶二員, 并正五品. 副千戶三員, 從五品. 若溫台, 若慶元紹興, 若杭州嘉興, 若昆山崇明常熟江陰等處, 凡五所. 而平江又有海運香莎糯米千戶所.”

물론 관방에서도 마조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여 성대하게 거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원조정은 지속적으로 해외 무역을 장려하였으며, 원조정이 해외무역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천주가 원에 귀속된 후 원 세조 쿠빌라이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천주는 신속하게 발전하였던 것이다.

至元 14年(1277) 동남 일대가 아직 전화에 휩싸여 있을 때, 원 세조는 명령을 내려 천주에 시박사를 설치하였다. 이 때 몽고인 銀青光祿大夫 忙古解를 파견하여 해외 무역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원조는 “매년 번방에 舶商들이 모여 珠翠, 香貨 등을 교역하게 하는”<sup>62)</sup>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등 대외 무역을 적극 장려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천주는 하나의 해외 통상 항구로 크게 주목되었다. 그 결과 마조는 ‘泉州神女’ 혹은 ‘泉州海神’으로 칭해졌고, 이어서 마조를 승격시켜 天妃로 삼았다.<sup>63)</sup>

마조 신앙이 이와 같이 발전하게 된 데에는 원 왕조의 적극적인 지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명대에도 마조 신앙은 여전히 조정과 연해 지방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민간에 확대되어 갔다. 명조는 日本, 琉球, 暹羅(태국), 滿刺加(말레이시아의 Malacca), 瓜哇(자바), 蘇門答臘(수마트라) 등지와 조공 무역이 이루어진 결과 사신 및 상인들이 해외로 출항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7차례에 걸친 鄭和의 남해 원정(1405-1433)은 오랫동안의 해양 생활로 항해신의 보호가 절대로 요청되었다. 정화 자체도 마조를 신봉하였으며, 수행원 중 다수가 복건의 泉·漳 일대 뱃사공이었으며, 그들은 천비를 독실히 신봉하였다.<sup>64)</sup>

정화 일행은 항해를 시작한 이후 수차례 위험과 조난을 당했으나 그 때마다 천비의 보우를 기원하여 위험을 벗어났다. 따라서 정화의

62) 『元史』 卷94 食貨2 市舶條.

63) 金秋鵬, 앞의 논문, p.7, “制封泉州神女號護國明著靈惠 協正善慶顯濟天妃.”

64) 李少園, 앞의 논문, p.24.

믿음은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출항할 때에는 반드시 배에 마조 신상을 봉안하였고, 여행 중 도착지에 달하면 마조에 제사하였다. 무사히 귀국한 후에도 제사하고 물건을 헌납하였다.

남경의 천비궁은 영락 5년(1407)에 지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정화가 제1차 남해 원정을 하고 돌아온 직후의 일이었다. 영락 14년(1416) 정화가 제4차 원정에서 돌아온 후, 마조의 도움에 보답하여 황제에게 주청하여 남경 천비궁에 “御制弘仁普濟天妃宮之碑”를 세웠다.

영락 13년(1415)에 정화는 복건의 長樂 남산에 行宮과 長樂天妃廟를 지어 官軍이 기도하는 장소로 삼도록 하였다.<sup>65)</sup> 영락 17년(1419)년 9월, 정화가 제6차 원정에서 돌아온 후, 천비의 보호에 보답하기 위해 南京 鳳儀門 밖에도 天妃宮을 짓기도 하였다.

그는 명조사절이 바다로 나가는 중요 항구인 천주를 중시하였으며, 제5차 출정 때에는 그 자신이 이슬람교 신자인 관계로 천주 이슬람성묘에 참배하였는데, 그 전에 복건 鎮守官에 명을 내려 천주 천후궁을 중수하도록 하기도 하였다.<sup>66)</sup>

정화는 남해 원정 중 여러 차례 天妃가 영험하게 도와주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하였다. 이 말을 들은 영락제는 명을 내려 湄洲, 長樂, 太倉, 南京 및 北京에 천비묘를 세웠으며, 그가 남경 천비궁 안에 친히 ‘南京弘仁普濟天妃宮碑’의 비문을 써서 천비의 공덕을 찬양하기도 하였다.<sup>67)</sup> 비문에는 천비궁의 건설, 그리고 천비의 도움으로 항해가 더욱 순조로웠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당시 정화의 남해 원정으로 말미암아 마조 신앙은 남양 제 지역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편 명대 농업 생산의 회복과 발전, 수공업 특히 면·견방직업과 도자생산은 연해 상업과 대외 무역을 촉진시켰다. 여기에 관여했던 河海운수업자와 화주는 마조의 비호에 의존했으며, 또한 명말 왜구의 빈

65) 위의 주.

66) 위의 주.

67) 蔡少卿, 앞의 논문, p.34.

변한 출현은 명조의 수군과 연해 주민이 마조에 의존하는 것을 촉진시켰다.

청대에는 마조 신앙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청의 대만 정벌과 마조 신앙의 전파이다. 명이 멸망한 후 복건에서 康王을 도와 반청복명운동을 전개하던 鄭成功은 대만으로 건너가, 臺南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네덜란드인을 몰아내고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아들 鄭經이 대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그 손자인 鄭克塽 때까지 이곳에서 반청 운동을 계속하였다. 1680년에 청군은 대만을 공략하고 정씨의 내분을 이용하여 1683, 마침내 대만 평정을 이룩하였다.

이 때 강희제는 천주가 본관인 施琅을 靖海將軍으로 파견하여 대만 평정을 완수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마조는 ‘天后聖母’로 봉하여지게 되고 마조묘도 지어졌다.<sup>68)</sup>

이 때 세워진 마조묘가 臺灣의 天后宮으로, 이곳은 南明의 寧靖王의 고택자리로, 강희23년(1684)에 靖海將軍 施琅에 의해 건립되었다. 그 안에는 施琅의 기공비가 있다.<sup>69)</sup> 이것은 대만에서 최초로 국가가 건립한 마조묘이다.

그러나 대만에서의 마조 신앙은 이미 명대 후기에 전파되었다. 그렇기에 청대에 220개 이상의 묘우가 존재할 정도로<sup>70)</sup> 마조 신앙이 민간 신앙으로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대만에서 마조 신앙이 성행한 것은 閩粵인의 이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송대부터 마조를 신봉하던 복건 및 광동의 연해지구 사람들 중, 명·청대에 이르러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린 사람들이 대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주 당시의 대만해협은 죽기 살기로 건너야 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이주민들은 해난 발생시 마조에 크게 의지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항해시에 마조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으며, 안전을 위하여 마조 신상을 배위에 모셔두기도 하였다. 신상이 없으면

68) 金秋鵬, 앞의 논문, p.8.

69) 連橫, 『臺灣通史』上冊(臺灣 商務印書館, 1983), pp.184-185.

70) 張桂林, 앞의 논문, p.31.

香火와 神符로 대신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무사히 도착한 뒤에는 神恩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들의 도착지나 터전을 잡은 곳에 마조묘를 짓고 “天妃”를 모셨다.<sup>71)</sup> 그러므로 대만에는 이민자를 따라서 마조 신앙이 전파되었고, 그것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급속히 발전하였던 것이다.

#### IV. 맺음말

媽祖는 중국 민간 신앙에서 신봉하는 여신 중 하나로, 항해 안전의 수호신으로 출발하였다. 10세기 후반, 福建省 莆田縣 湄洲 섬의 한 무녀에 지나지 않던 林默이라는 여성이 마조로, 그녀는 해안 지방 뱃사람들에게 항해 수호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마조 신앙의 유래다. 지금은 중국만이 아니라 타이완, 동남아시아 각지에 ‘媽祖廟’가 세워져 있는데, 이 媽祖는 단순히 航海神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면에 이익을 주는 萬能神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마조 신앙은 연해 지방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해안 지역 사람들이 강이나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 순풍과 안전을 기원하여 마조를 숭앙하고, 마조묘에 참배하였다. 마조 신앙은 이런 항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생겨난 것으로, 항해자의 필요성과 민간 신앙의 실용적인 공리성이 결합되어 마조 신앙은 성립되었다 할 수 있다.

한편 항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이 요구되었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마조 신앙이 필요하게 되었다. 송·원이래 조정이 필요한 물자들은 대부분 조운을 통하여 京師에 이르렀고, 이것들은 수 천리의 해로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에 태풍과 해적의 출현을 막아주는 해신으로서의 마조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수호신으로 등장하였

71) 徐葆光, 『中山傳信錄』.

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마조를 공인하고, 후원하였던 것이다.

단순히 항해 안전을 위해 출발한 마조 신앙이 송·원 시대 조운과 무역의 발달에 따라 마조가 해양신으로 기능하게 되었고 지역적으로도 널리 확산되어 나갔다. 송대 이래 조운, 통상, 어업과 관련된 연해 도시에 많은 마조묘가 세워졌다. 송·원 시대의 대외 무역, 원대의 조운, 명대 정화의 남해 원정 과정, 명·청대 천주 상인 광둥 상인의 활약으로 마조 신앙은 미주섬, 천주 등을 거쳐 여러 연해부 일대로 확산되어 나갔다. 특히 복건의 천주 상인들의 활약으로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마조 신앙이 확산되어 나가, 동남 해안은 물론 북으로 동북지방의 瀋陽, 華北의 天津, 煙台, 靑島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마조묘가 세워졌다.

단순한 민간 신앙의 하나인 마조 신앙은 차차 국가가 필요로 하는 민간 신앙이 되어갔다. 국가의 이익과 필요로 인하여 원·명·청대의 마조는 송대의 전설적인 민간 신앙에서 하나의 국가 공인의 신앙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원대에는 마조묘에 ‘順濟’ ‘靈慈’ 등의 묘액이 하사되었다. 더불어 마조에 대하여도 원대와 명대에는 ‘天妃’로, 청대에는 ‘天妃聖母’와 ‘天后’ ‘天上聖母’ 등으로 여러 차례 마조에게 봉호를 주어 그 권위와 위상이 더욱 높아져 갔다.

마조에 대한 이러한 승격과 숭앙은 전지전능한 ‘天主’와 관련지어 그렇게 한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일개 지방의 민간 신에 불과한 마조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항해신, 만능신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조의 신앙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媽祖信仰이 다른 민간 신앙보다 더욱 성장 발전하게 된 데에는 송대 이래 중국의 상업이 발달하고 해상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과 조정이 봉호를 내리며 마조 신앙을 활용하였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마조 신앙은 초기의 단순한 민간주도형에서 관방주도형으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마조 신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실존의 인물이 신격화되었다.
- ② 국가의 보호 하에 발전하여 왔다.
- ③ 신앙이 지속적이며, 광범위하게 발전하여 국제성을 띠고 있다.
- ④ 일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⑤ 동향적, 민족적 응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마조 신앙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미신적·비과학적인 활동의 온상’이라고 하여 엄히 규제하여 왔다. 특히 문화대혁명의 진전과 함께 규제가 더욱 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기부터 다시 마조묘의 부흥이 목인되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활발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이전보다 많이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회도 날로 발전하여 사람들의 일상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거기에 반하여 사회는 상호 경쟁이 심해지고 빈부의 차가 격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빈곤에 빠지기 일쑤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 경쟁은 한편으로 사람들을 좌절과 무능, 그리고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비로운 신령에 의지하여 공포를 제거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출현한 이러한 심리 상태가 예전과 같이 민간 신앙이 융성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조 신앙은 현재에도 關帝廟와 함께 가장 많이 섬겨지는 민간 신앙 중의 하나로 중국, 타이완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의 중화가에 마조상이 모셔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조 신앙은 2009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로 등록되어 그 가치와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中文提要)

## 關於中國媽祖信仰的成立與發展

李京圭

中國民間信仰有很悠久的歷史傳統。因為它對於人間基本的宗教欲求有多樣的功能。民間信仰從佛教・道教受容神學理論與神而把歷史上的主要人物神格化了。

神是人創造出來的而人把超自然的力量賦與神。古人的生產力太底而科學知識也缺乏的關係，人們關於自然現象與社會的困境覺得恐怖，所以利用超自然的力量來從恐怖和困境要擺脫出來。

中國的民間信仰當中的媽祖信仰是國內外的中國人很敬虔地崇拜的信仰而人們把她稱號‘天上聖母’，‘海上女神’，‘世界和平女神’。從古代媽祖以海上的保護神當做航海者的精神的支柱。媽祖信仰跟着航海者的足跡傳播到中國的沿江・沿海地區而南洋等海外地區。

在臺灣媽祖信仰的盛行和閩粵人的移民有密切的關係。過去臺灣海峽的閩粵人依靠媽祖，平安到達時，他們爲了感謝媽祖新建媽祖廟，供奉媽祖神像。因此目前臺灣的媽祖信仰非常興盛。

在宋・元時代因對外貿易的必要性媽祖信仰需要的，在元代因對漕運的必要性媽祖信仰需要的，在明代因鄭和七次下西洋的必要性媽祖信仰需要的，在清代施琅平定臺灣的必要性媽祖信仰需要的。即對媽祖的國家的必要性非常大，所以各王朝都對媽祖加封的。

民間信仰的本質從一般老百姓的日常生活開始的。目前中國大陸隨着經濟的發展，許多人處於精神上的貧困，所以很多人開始信民間信仰，因此民間信仰再復興的。最近每年爲了紀念媽祖的誕生仍然從國內外衆多的進香團到湄洲祖廟正在參拜是這種現象的反映。

下面列舉媽祖信仰的特徵



- 1)實在人物的神格化
- 2)國家保護下發展的
- 3)信仰的連續性, 國內擴散和國際性
- 4)精神上的依靠和有安定社會的技能
- 5)強化同鄉意識和有凝集民族的技能

주제어: 민간 신앙, 마조, 해상보호신, 조운, 하서양.

關鍵詞: 民間信仰, 媽祖, 海上保護神, 漕運, 下西洋.

Keywords: a popular belief, MaJu, an ocean god, marine transportation, go to the West

(원고접수: 2010년 8월 19일, 심사완료 및 심사결과 통보: 9월 29일, 수정원고 접수: 10월 10일, 게재 확정: 10월 23일)